

한국 '金3·톱10' 출사표... 21일은 '금메달의 날'

벨라 밀라노 D-8... 대회 주요 일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개회식 다음 날인 8일(한국 시간)부터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선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순위 14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3개 이상, 톱10 진입으로 삼았다.

첫 메달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베센윈가드)가 도전한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이상호는 8일 오후 5시 이탈리아 리베노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평행대회전은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코스 내려와 경쟁하는 종목으로, 이상호는 이전 대회인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8강에 진출했다.

첫 금메달은 10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자종목 쇼트트랙 대표팀이 출격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오후 8시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혼성 2000m 계주에 출전한다.

혼성 2000m 계주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됐다. 당시 한국은 준준결승에서 넘어져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혼성 2000m 계주는 단거리 종목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힘이 좋은 최민정(성남시청), 황대현(강원도청)이 대표팀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12일에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정대운(서울시체육회)이 메달 도전에 나서고, 13일 새벽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은(세화여고)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올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한 최가은은 재미교포 클로이 김과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던 클로이 김은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 올림픽 3연패를 노리고, 최가은은 그 야심에 도전한다.

13일 오전엔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선이 열린다.



22일 열린 '2026 밀라노-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우승인 대한체육회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쇼트트랙 혼성 계주, 첫 금 도전... 13일 스노보드 최가은 출전 21일 빙속 정재원, 쇼트트랙 최민정·남자 계주서 금빛 질주 기대

임종언(고양시청)과 황대현, 신동민(고려대)이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한국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은 '세계최강' 윌리엄 단지누(캐나다)와 메달색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 차준환(서울시청)이 출전하는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이 열린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에 올랐던 차준환은 한국 남자 선수 최초 올림픽 메달을 바라본다.

같은 날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선 이재운(경희대)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스켈레톤 남자 국가대표 정승기(강원도청)는 깜짝 메달을 노린다.

15일에 임종언, 황대현, 신동민이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남자 1500m는 한국 쇼트트랙의 핵심 종목이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바라본다. 이 종목에서도 단지누와 불꽃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같은 날 열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선 김준호(강원도청)가 메달에 도전한다. 김준호는 올 시즌 이 종목 한국 기록(33초78)을 세웠고, 월드컵 2차 대회 2차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투톱' 김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은 16일 주 종목인 여자 500m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최근 두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으나 여자 500m는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2025-2026시즌 세계 신기록을 세운 펠레 콕(네덜란드)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같은 날 쇼트트랙 최민정, 김길리(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는 여자 1000m에 출전한다.

2022 베이징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딴 최민정은 이번 대회 금메달을 노린다.

최대 경쟁자는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다. 사로다는 올 시즌 급격하게 성장하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투어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18일에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 출전하는 김진수, 김형근(강원도청)이 메달을 목표로 합치게 달린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9일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은 함을 쏟아낼 예정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2022 베이징 대회에선 네덜란드에 아쉽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을 땀다.

20일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이 열린다. 대표팀 간판 신지아(세화여고)가 메달 후보로 꼽힌다.

신지아는 러시아 출신 개인종합선수 아델리아 페트로시안과 2025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미국의 알리사 리우, 이번 대회

를 은퇴 무대로 삼은 일본 사카모토 가오리와 경쟁한다.

21일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골든데이'로 꼽힌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 종목인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이 이날 열린다.

최민정과 김길리, 노도희가 출전해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최민정은 평창, 베이징에 이어 이종목 3연패에 도전한다.

남자 대표팀도 같은 날 5000m 계주에서 우승을 노린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타트도 이날 펼쳐진다. 베이징 대회 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정재원(강원도청)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메달은 여자 대표팀 경기도청(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과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김진수, 김형근, 김선욱(강원BS경기연맹), 이건우(강원BS경기연맹)가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팀이 출전하는 컬링 여자 결승은 22일, 3, 4위 결정전은 21일에 열린다.

글·사진=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주요 일정

한국시간	경기명	선수명
2월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이상호
10일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최민정 임종언
12일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정대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언 황대현 신동민
14일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	차준환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이재운
	스켈레톤 남자	정승기
15일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김준호
	쇼트트랙 남자 1500m	임종언 황대현 신동민
16일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김민선 이나현
	쇼트트랙 여자 1000m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18일	봅슬레이 남자 2인승	김진수 팀 석영진 팀
19일	쇼트트랙 남자 500m	임종언 황대현 신동민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최민정 김길리
20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	신지아 이혜인
21일	쇼트트랙 여자 1500m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임종언 황대현
	스피드 스케이팅 남녀 매스타트	정재원 박지우
22일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김진수 팀 석영진 팀
	컬링 여자 결승	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 진출시

연예인 Entertainers
신경애 지음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공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케'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